서울경제

파괴된 DMZ 희망의 씨앗 싹 틔운다

March 29, 2025 | 김경미 기자

장타 퀸 윤이나, 첫날부터 '이글이글'

LPGA 포드 챔피언십 1라운드

비거리 304야드~이글 2개 '폭발'

선두 찰리 헐에 2타 뒤진 공동 3위

김세영·이미향·임진희도 한 그룹

슬로 플레이 규제에도 '고공행진'

윤이나가 28일 포드 챔피언십 1라운드 4번 홀에서 타상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2024시즌 국내 여자 골프계를 점수하고 미국행을 선택한 윤이나(22·솔레어)가 첫 두 대회에서 부침을 겪었다. 신인왕 타이틀 획득을 프로로 데뷔한 이듬해 파운더스컵에 나섰지만 컷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고 중국에서 열린 대회 때는 공동 33위에 그쳤다.

3주간 휴식을 취한 윤이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장기간 절타와 예리한 아이언 샷이 살아나며 미국 무대에 적응한 모습이다. 윤이나는 미국 진출 이후 세 번째 대회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총상금 225만 달러) 첫날 선두권에 올라 신인왕 타이틀을 향한 추격전에 불을 댕겼다. 다케다 리오(일본)가 293점으로 신인상 포인트 1위, 윤이나는 17점으로 8위다.

윤이나는 28일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윌위드GC(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이글 2개, 버디 4개,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를 쳤다. 9언더파 선두 찰리 헐(잉글랜드)에 2타 뒤진 공동 3위다.

이날 윤이나는 평균 304야드의 장타를 날리면서 페어웨이는 두 번밖에 놓치지 않는 정확한 드라이버 샷을 구사했다. 그린 적중률도 88.9%(16/18)에 이를 정도로 앞선 두 대회와 비교해 날 선 샷 감각을 자랑했다. 앞선 두 대회에서 기록한 페어웨이 안착률(51.19%), 그린 적중률(58.33%)과 비교하면 샷 정확도에 대한 아쉬움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 수치다.

윤이나는 전반 9홀에서 버디 2개와 보기 1개로 1타밖에 줄이지 못했다. 하지만 후반 들어 골타치기가 시작됐다. 12번 홀(파5)에서 4번 아이언으로 전 두 번째 샷을 홀 옆 3m 남짓 거리에 떨어뜨려 이글 퍼트를 성공하더니 14번(파4)과 17번 홀(파5)에서 버디를 2개 추가했다.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는 88m 거리에서 친 웨지 샷이 샷 이글로 연결돼 2타를 더 줄이고 경기를 마무리했다.

투어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노리는 헐이 9언더파 단독 선두다. 헐은 이날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 7km를 뛰고 하체 운동을 마친 후 경기에 출전하고도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뽑아내 관심을 모았다. 나나 마센(덴마크)이 8언더파 2위다.

이번 대회부터 김하늘 슬로 플레이 규제가 적용돼 가운데 홀시 클럽당 한국 선수들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LPGA 투어는 주어진 샷 시간보다 1~5초가 늦으면 벌금, 6~15초가 늦으면 1벌타, 16초 이상 초과하면 2벌타를 부과하는 규제안을 발표하며 포드 챔피언십부터 적용한다고 알렸다.

김세영과 이미향·임진희가 7언더파를 쳐 윤이나와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고 유해란과 최혜진은 5언더파 공동 17위다. '이시안 스윙'을 건너뛰고 40여 일 만에 대회에 나선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는 5언더파 공동 17위로 무난한 출발을 보였다. 윤이나와 신인왕 경쟁자로 꼽히는 일본의 리오는 3언더파 공동 45위에 그쳤다. 이종호 기자

"쇄기골은 헤딩 슛으로" FC바르셀로나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왼쪽)가 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에스타디 올림피크 류이스 콤파니스에서 열린 2024-2025 스페인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오사수나전에서 다이빙 헤더로 쐐기골을 터트리고 있다. 바르셀로나가 3대0으로 이겨 선두를 질주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충전식 골프볼·스피드건 K스포츠의 미래 '한눈에'

스포츠산업전 '스포엑스' 가보니

평면의 한계를 뛰어넘은 경사형 퍼팅 매트.

2025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스포엑스 2025)이 열린 28일 서울 강남구의 코엑스 전시홀. 이색 퍼팅 매트가 전시된 부스 한편으로 골프 볼을 휴대폰처럼 '충전'하는 모습이 보였다.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스마트 골프볼(사진)'이라는 설명. 이 볼을 만든 홍두영 그린포크 연구소장은 "드론의 자세 추정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볼을 자체 퍼팅 매트에서 굴리면 '3m 퍼트 때 평균 10cm를 짧게 친다'는 식의 분석이 이뤄진다. 거리와 볼의 성질 등 각종 데이터가 쌓여 휴대폰 하나로 퍼팅 실력을 가늠 수 있다"고 했다.

스포엑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스포츠 산업 종합전시회다. 올해로 25회째다. 지난해 스포츠 기업 298개 사가 참가했고 올해는 더 늘어 320여 개 기업이 1700개의 홍보 부스를 30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수출·투자 상담회, 채용 박람회는 물론 정근우(야구)·조왕희(축구) 등 프로 선수들의 알일 강습회도 진행된다.

320여개社 1700개 홍보부스 운영

AI 자전거거치대~7초 보행분석도

CES 참가기업 테크기획관도 인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참가·수상 기업을 모아 스포테크 특별기획관도 운영한다. 스포츠계 첨단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곳으로, 미국골프협회(USGA) 룰에 맞게 퍼팅 매트에 경사를 구현한 그린포크도 올해 CES를 다녀온 기업이다.

P1 스포츠견은 경희대 이공계 재학생 2명이 설계해 CES와 이번 스포엑스에서 야구팬들과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제품이다. 이태욱·이준용 키아부테크 대표는 "스크린 야구장에서 쾌적한 구속에 의심을 품은 게 시작이었다"며 "이 제품은 크고 무거운 운 자동의 스피드건과 비교해 컴팩트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손바닥 반 만한 기기를 스마트폰에 꽂기만 하면 화면에 구속이 찍힌다. 호환 가능도 있어 개인 훈련에 좋다.

자이로스피드는 수건으로 하는 야구의 새로운 정체구속 예측 기술을 입힌 제품이다. 수건에 에너지를 손잡이에 전해 장착했다. 김태훈 대표는 "야구를 시작한 아이를 위해 재밌는 훈련 용품을 찾다가 직접 만들게 됐다. 구속 예측치가 찍혀 반복 연습을 지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정된 실내 자전거인데 밖에서 타는 '진짜' 자전거 느낌을 주는 제품도 있다. 리얼디자인테크의 알티에이스. 말하자면 인공지능(AI) 자아를 거치대다. 좌우 움직임을 자유롭게 허용하면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특허 기술로 CES 헬스케어 부문 혁신상을 받았다. 코어 근육 강화와 치매 예방 효과를 입증받았고 초중고교에도 납품하고 있다. 이 밖에 가상현실(VR) 기기를 착용하고 눈앞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운동으로 이명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기, 7초만 걸어도 227가지 자료로 보행을 분석해주는 마커리스 분석기 등에도 관람 객들의 발길이 머물렀다. 글·사진=양준호 기자

대한체육회, 정몽규 축구협회장 취임 승인

'정몽규 4기'가 공식 출범한다.

대한체육회는 28일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한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취임 승인을 전날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치러진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85.7%의 압도적 득표율로 신문선·허정무 후보를 제치고 4연임에 성공한 정 회장은 체육회 인준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정 회장은 임선 이후 '협회 종목 단체의 회장은 국내 서열을 갖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유승민 체육회장의 인준을 기다려왔다. 체육회는 "국정과 질서, 법리적 해석, 자정 의지, 국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축구협회의 혁신 이행을 전제로 인준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파괴된 DMZ '희망의 씨앗' 싹 틔운다

최재은 '새로운 우대(2026)'. 사진 제공=국제갤러리

최재은 개인전 '자연국가'

10년 걸친 DMZ프로젝트 최종장

누구나 '종자 볼' 기부 참여 가능

숲의 빛·소리 해석한 작품 '다채'

전시장 곳곳에 배치된 말린 꽃과 식물 장식의 목재 병풍 너머 노트북 컴퓨터 한 대가 놓였다. 화면 속 단어 '자연국가'를 클릭하면 비무장지대(DMZ)의 파괴되고 황폐은 땅을 푸른 숲으로 되돌리기 위한 '종자 볼(Seed bomb)'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웹페이지에 접속된다. 관람객들은 설명을 읽고 DMZ 지도를 살펴보며 자신이 원하는 구역을 골라 종자 볼을 뿌릴 수 있다. 100원에 한 개가 기부되는 3~5cm 크기의 종자 볼은 생태계 복원에 반드시 필요한 식재들을 싹틔울 품고 드론에 실려 DMZ 곳곳에 뿌려질 예정이다. 충분히 발은 종자 볼이 뿌려져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우면 DMZ 내 파괴된 682개 구역, 합계면 총 204km에 이르는 거대한 나지(裸地)가 푸른 숲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

관객의 참여까지 포함한 이 작품의 이름은 '새로운 우대'다.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 K3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실치미술가 최재은이 10년에 걸쳐 이어온 'DMZ 프로젝트'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작가는 2015년 '대지의 꿈'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들의 중오로 파괴된 전쟁의 공간인 DMZ에서 자라나는 자연의 생명력에 주목했다. 하지만 실제의 DMZ는 기대와 달리 파괴와 훼손이 심했고 작가를 생태 회복 프로젝트 '자연국가'로 이끌었다. 작가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수년에 걸쳐 지역 생태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수종을 선정하는 등의 체계적 연구를 펼친 뒤 지뢰를 파해 숲을 복원할 '씨앗 폭탄'이라는 실천 방법까지 찾았다. 하지만 파괴 정도를 고려할 때 종자 볼은 어림해도 20억 개 이상이 필요하다. 전 지구적 참여와 국경을 넘는 새로운 유대를 맺어야 한다는 고민이 작품을 탄생시켰다.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든 기부를 약속할 수 있지만 실제 기부는 환경이 마련됐을 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공장 숲 회복을 위해 실천해야 할 때"라며 참여 플랫폼의 설계를 편 작품을 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전 '자연국가'에서는 실천적인 예술을 넘어 작가의 오랜 관심사인 '숲'을 다채롭게 해석한 작품들도 여럿 공개된다. K2 1층으로 이어지는 전시에서는 매일 숲을 산책하는 작가의 일상이 반영된 '숲으로부터' 회화 연작을 만날 수 있다. 2층에서는 숲의 빛과 소리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 텍스트, 조각,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펼쳐진다. 5월 11일까지, 무료. 김경미 기자

유럽·韓 '클래식계 아이돌' 합동무대

파리오케스트라 9년 만에 내한

메젤레·임윤찬 6월 릴레이 공연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파리오케스트라가 9년 만에 6월 한국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유럽과 한국 클래식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지휘자 클라우스 메젤레와 임윤찬이 협연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둘은 모두 20대로 메젤레는 29세, 임윤찬은 21세다.

파리오케스트라는 1828년 설립된 파리 음악원 관현악단을 계승해 창단됐으며 1967년 11월 사를 뮌슈의 지휘로 첫 연주회를 가졌다. 대표비르트 폰 카라얀, 게오르그 솔티 경, 세르 미치코프, 다니엘 하딩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음악 감독을 맡았다. 2021년 1월부터는 메젤레가 일 번째 음악감독으로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공연의 파이스트로인 메젤레는 유럽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젊은 지휘자다. 그는 세련된 해석과 독창적인 접근으로 현대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파이노 협주곡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확장해 프랑스 음악 특유의 투명하고 정교한 사운드를 구현한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라벨이 편곡한 '무소륵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연주된다.

협연에는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적인 스타 피아니스트로 솔리스 임윤찬이 함께한다. 그가 연주할 작품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이다. 전작에 비해 드물게 연주되지만 라흐마니노프의 수많은 고민과 실험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이다. 새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일 때마다 자신만의 과감한 해석으로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한 그가 이번에는 어떤 연주를 들려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6월 11일에는 예술의전당, 13일에는 LG아트센터, 14일과 15일에는 롯데콘서트홀에서 공연된다. 연승 기자